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 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움을 넘어 (Design By Self)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since 1946

동아는 지금

111 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1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

1946년 11월 1일 출발해 올해로 72년을 맞은 동아대학교는 지역과 동고동락하며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맞닥뜨린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학생들은 물론 지역민들과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단단한 힘을 지닌 부리가 커다란 거목을 키워내듯 100년을 준비하는 동아대학교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시작한다.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 허브 조성', '미래교육관 건립'을 중심에 둔 '동아 100년 동행'은 20만 동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 참여로 '동아 100년'을 완성할 것이다.



동아 100년을 향한 물결, 그 시작을 알리는 111번째 소식지

- Issue Focus**
- 04 동아, 백년에서 백년으로 다시 날아오르다 _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 10 인문학 향연, 지역과 동아의 영혼을 채우다 _ 지역과 함께 하는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 Hot News**
- 14 '자율개선대학' 및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선정 겹경사
 - 1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 15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 3억 원 돌파
 - 16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취임, 학군단 역사관 개관
 - 17 흥인길·구문갑 명예박사 학위 수여
 - 18 해외취업 및 1인 창업·사업자 수 연속 1위 기록
 - 18 산업공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4년 연속 'S등급'
 - 19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당선자 58명 배출
 - 19 동아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 20 서정화 교수 '부산과학기술상 여성과학자상' 수상
 - 20 박남식·한세익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 21 한성호 교수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 21 김경태·이정규·남현정 교수 등 연구 성과
 - 22 이정용 선수, LG트윈스 1차 지명
 - 22 스포츠단 선수들 전국 대회 대학부 제패
 - 23 해외 대학과 활발한 교류협정 체결

- Dong-A People**
- 24 조흥래 삼흥기업 회장 _ 나눔의 씨앗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
 - 26 예그리나·다메이트·데일리 _ 동아를 알리는 얼굴들, 동아를 이야기하다
 - 30 입학사정관 김신광 _ 내가 만드는 두 개의 무대

- Happy Donation**
- 32 발전기금·기부현황
 - 32 후원의 집 소개
 - 40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소개
 - 43 기부안내 및 납부 방법

소식지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약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산세리프 서체에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이다. 페노는 일정한 굵기 대신 굵고 가는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동아는 지금 · Dong-A Now

동아대학교 소식지 (통권 111호)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한석정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홈페이지 www.donga.ac.kr / www.fund.donga.ac.kr
 기획·디자인 (주)GMK커뮤니케이션 051)322-0815

▼동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전기금 기부를 약속한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왼쪽)



다시 날아오르다 동아, 백년을 향해

지난 1946년 11월 1일 문을 열고 올해로 72년을 맞는 동아대학교가 다시 날아오르고 있다. '동아 100년 동행'은 이제까지 쌓아온 동아의 내공을 더 알차게 채워 100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다.

'동아 100년 동행' 새로운 역사의 시작

법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동남권 유일 대학인 동아대는 최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270억 원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동아대는 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 22억 원 규모의 '20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에도 최종 확정돼 대학 발전에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동아대의 활발한 날갯짓은 이 뿐만이 아니다. 링크플러스사업과 인문역량강화사업,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정부사업에 선정되며 서부산 부흥과 지역거점 사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추세로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동아대는 이러한 현실을 넘어 세계명문사학의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은 물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3월 새로운 역사 쓰기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이 그 첫 발걸음이 됐다. 교직원 및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은 물론 20만 동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 건립' 등으로 '동아 100년'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미래교육관 건립'에 20만 동문의 파워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 건물은 신입생 대상의 교양교과목 전용 강의공간은 물론 동문 명예의 전당과 문화공연 및 지역민 초청강의 장소로 구성될 계획이어서 세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리더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실행에 옮겨야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우수 대학의 경우 기부금이 대학의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만큼 대학성장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동문들이 기부를 통해 십시일반 성장동력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그들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까지 덤으로 전수받기 때문이다. 단단한 힘을 지닌 뿌리가 키워내는 거목과도 같은 동아대학교가 되려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 시작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이다.



▲ '동아 100년 동행'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는 한석정 총장



▲개교 100주년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 현장

▲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석정 총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20만 '동아줄' 동문, 캠페인 앞장

대학의 외형·내형적 성장은 대학만의 노력과 재정만으로 이루기 힘들기에 동문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대학이 100명의 기업인에게 기부를 받는다면 대학은 100명의 치열한 사업가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조언을 받게 되는 셈이다.'라는 말처럼 동아대학교는 이미 영혼의 조력자, 100인이라는 막강 파워를 장착한 것이나 다름없다.

모금캠페인 과정에서 정·재계와 관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동아대학교 동문과 대학본부 보직자, 총학생회 임원 등 130여 명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에 참여했다. 지난 3월 28일 개최된 발족식에서 한석정 총장은 "동아대학교는 정계, 관계, 법·조계, 재계에 술한 거물을 배출했고 이들은 끈끈한 모교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막강 동문파워를 따라올 대학이 없다."며 "동아대 최초의 동문관이자 후배들의 교양 강의 공간이 될 건물을 세워 동아인의 역사와 저력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이에 기꺼이 호응했으며 본인들이 재학했던 당시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동아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석정 총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현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고문직을 수락했다.

▼ 재학생 재능기부로 제작된 광고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박관용 위원장은 "대학 졸업 후 가장 열정을 심어준 날이 바로 오늘이다. 감동적인 이 시간을 통해 동아대의 더 큰 발전을 확신한다."며 "동아대가 아시아 최고의 사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또 강병중 공동위원장은 "대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직원들이 더 힘을 내 필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문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사람이 다 동아대 출신인 만큼 동문들이 단결하면 발전기금이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동문들은 '친구가 슬프고 괴로울 때 같이 가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다.', '동아대 명성 재건에 앞장서자.', '제2의 개교기념일이다.' 등 훈훈한 인사를 나누며 '동아 100년'의 의지를 다졌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캠페인 발전위원회, 기부에 동력을 더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동아대가 걸어온 길, 72년. 학생, 교직원, 동문, 지역민이 없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내밀어주는 손이 있어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잡아주는 손과 걸음이 있기에 '동아 100년'도 가능할 것이다.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발전기금 150억 원을 쾌척, 동문 사회와 대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발전기금 약정식에서 150억 원을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으로 내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했다. 그는 "이번 기부는 시작에 불과할 뿐 더 많은 동문들이 단결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모금 캠페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꾸준한 기부천사'로 불리며 판사 시절부터 사회와 모교에 기부활동을 펴온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가 모교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지속적으로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태왔던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모두 1억 8,000여 만 원을 기부했다.

구문갑 청호냉동주식회사 회장은 모교 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아대 상학과(현 경영학과)를 특대 장학생으로 졸업한 구 회장은 "학창시절 석당 정

재환 선생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갚고자 모교 발전기금을 내게 됐다."며 기부 동기를 밝혔다.

"먼저 시작해 동참을 이끌어내고 싶었다."는 이병욱 (주)미래더원 대표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 현장에서 동문 가운데 가장 먼저 약정서에 사인해 동문들의 모금행렬을 이끌어내 박수 받았다. 십시일반 모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을 지내고 모교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는 조무제 석좌교수가 2,000만 원을 남모르게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줬고, 30여 년간 법제처에 몸담았던 제정부 석좌교수도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른바 흠수저 출신으로 성공한 동문의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 모금 캠페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 '동아 100년 동행'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교육인프라 확충 '미래교육관' 건립

'동아 100년 동행'의 핵심은 어쩌면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용'과 '형식'은 통일돼야 하는 만큼 내용을 담을 그릇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대는 승학캠퍼스 입구 대로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미래교육관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학 구성원과 20만 동문들의 힘으로 건립될 미래교육관은 신입생 대상의 교양교과목 전용 강의공간으로, 동문 명예의 전당과 동문라운지 등 동문의 교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교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승학캠퍼스 교육시설 개선은 물론 초청 강연이나 문화예술 공연 등 부산과 경남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높은 수준의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미래교육관은 2021년 개통 예정인 부산도시철도 '하단-사상'선 '동아대학교역' 바로 앞에 위치, 접근성도 높아 동아대 발전의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동아대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의 하나로 승학캠퍼스 중앙운동장을 자연친화 휴식공간인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으로 조성했다.

「 건축 개요	총사업비	: 약 150억 원
	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건축면적	: 1,000㎡(약 300평)
	연면적	: 8,000㎡(약 2,400평)
	사업기간	: 약 30개월(2020년 준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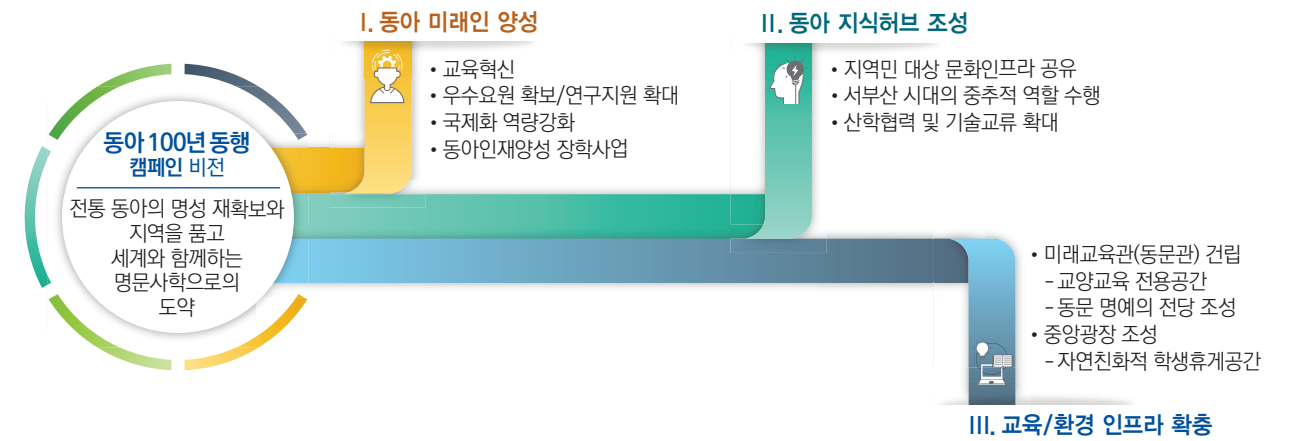
동아인재 '동아젠틀맨' 양성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비전 가운데 하나인 '동아인재 양성'은 네 가지로 달성할 계획이다. '교육혁신'과 '우수요원 확보 및 연구지원 확대', '국제화 역량강화', '동아인재양성 장학사업' 등이 그것. 미래교육관(동문관)이 외형적 혁신의 상징이라면 동아대만의 차별화된 인재양성은 내실을 다지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동아대는 지금도 전공 기초교육을 넘어 젊은이들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교육 실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교육 역시 자기주도적이며 유연함을 갖춘 융합전공, 자기설계전공 제도를 강화하는 등 미래형 전공 교육과정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업체와 교육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실무형 교과목으로 산업·직무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도 동아대의 자랑거리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성공은 인성과 도전정신, 환경의식과 봉사정신 등을 두루 갖춘 세련된 '동아젠틀맨' 양성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교수진의 강의 및 연구역량 강화, 우수 교직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각종 장학사업 등에 대한 투자와 노력도 더욱 빨라질 예정이다.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 현재 아시아를 비롯 유럽, 미주 등 32개국 254개 기관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도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더 넓어지고 강화될 전망이다.

▼ 승학캠퍼스 입구 대로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미래교육관(동문관)



지역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지식 허브'

동아대는 지역 거점 및 교육 중심 지식 허브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인문역량강화사업(CORE)과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및 LINC+), 대학특성화사업(CK)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BEYOND 동아'의 교육개혁시스템 안에서 창의, 도전, 소통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부분에 가장 많은 실행과제도 추진 중이다.

또 부산 및 동남권 인재 배출의 핵심 종합대학으로 서부산권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흐름인 인더스트리 4.0의 축을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 중심 산학연 연구단지조성 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동아대는 뇌혈관질환 전국 최고의 연구능력을 갖춘 의과대학, 건강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실버·바이오·헬스' 분야와 디자인환경대학·인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문화재생' 분야, 그리고 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고도화'를 기반으로 3각축을 형성하면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 100년 동행'이 지역거점 사립대학(지식 허브)으로서의 동아대의 규모와 위상을 갖춰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아 100년'의 완성

동아대는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사학'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20만 동문이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인적 인격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동아젠틀맨'들이 순차적으로 배출되면서 그 꿈에 한 발씩 천천히 다가가고 있다.

무엇보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과정에서 쌓아나가는 선배들의 조언과 네트워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며 동아의 DNA를 새롭게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대는 사립대의 역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옥스퍼드나 하버드와 같은 세계적인 사학으로 우뚝서기 위해 '동아 100년'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미국 기부금 상위 5개 대학 (교육지원위원회(CAE) 조사, 2016년 기준)

순위	대학	기부금액
1	스탠퍼드대	16억 3,000만 달러 (약 1조 9,731억 원)
2	하버드대	10억 5,000만 달러 (약 1조 2,710억 원)
3	서던캘리포니아대 (USC)	6억 5,300만 달러 (약 7,904억 원)
4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6억 900만 달러 (약 7,371억 원)
5	코넬대	5억 9,000만 달러 (약 7,141억 원)

인문학과 지역과의 영혼을 채우다

동아대학교의 교육철학은 설립자인 석당 선생이 창안한 동좌문도(同坐問道)다. '스승과 제자가 한자리에 앉아서 정도(正道)가 무엇인가를 문답한다.'는 뜻이다. 교수와 학생이, 교수와 교수가, 학생과 학생이, 대학과 지역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학기 동안 동아인과 지역민의 영혼을 살피운 인문학 향연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세계적 석학, 동아를 찾다

동아대는 세계적 석학 등을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잇따라 열고 인문사회 분야가 학교와 지역, 국가 경쟁력의 해답임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동아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과 석당학술원, 인문과학대학, 석당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 등은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공유성·확장성'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5월 25일부터 이틀간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등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러시아, 베트남 등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사철학과 내셔널리즘의 일급 이론가로 명성이 높은 세계적 석학 프레스진트 두아라(Prasenjit Duara) 미국 듀크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중국의 세계질서 되짚어 보기 : 국민국가의 제국주의인가, 소프트 파워인가?'라는 제목으로 펼쳐졌다. 미국 아시아연구학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2016년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문화와 종교에 관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이날 2015년 일본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사과 성명을 압박했던 해외 석학 서명의 주도자로 우리나라에서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가 '동아시아 리얼리티에서 정체성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지난 5월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공유성·확장성' 주제 국제학술대회



동아대 할랄문화센터 등은 '이슬람문화의 다양성과 기원'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포럼을 지난 4월 27일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에서 열었다. 이날 포럼은 이슬람과 할랄문화의 내용 및 특성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선 이르완디 자스위르(Irwandi Jaswir)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 (IIUM,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Malaysia) 교수가 '스탠다드형 할랄문화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천상철(Sen So-Tetsu, 千相哲) 일본 규슈산업대학(Kyushu Industry University, Japan) 교수가 '문화탐방활성화 시론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심원섭 목포대 교수가 '국내 무슬림 인구 및 문화 현황과 문화관광 인프라 :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각각 발표해 주목받았다.

동아대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중국국가한판과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4월 27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동아대 동아시아연구원과 동북사범대 동아시아연구원은 MOU 체결식을 갖고 학술교류 및 연구과제 공동 수행 등 동아시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빅데이터 시대 급속한 성장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전과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대한중국어학회와 동아대 BK21+PLUS사업단이 준비한 석션에선 중국문학과 중국어학, 중국사회과학 등에 대해 토의하는 풍성한 학술행사 등도 이어졌다.

▼ 프레스진트 두아라 미국 듀크대 석좌교수



▼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인문학 지식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다

동아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과 인문과학대학은 '2018 DONG-A 인문학콘서트 8th 봄편'을 지난 5월 31일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열고 부산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문화'가 결합된 풍성한 인문학 향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열린 콘서트에선 '반복과 변화: 시와 예술, 삶'이라는 주제로 예술가들이 시와 음악, 영화 등에서 사용하는 소리·색·패턴 등의 '반복'과 '변화'를 일깨우며 삶에서 이러한 반복과 변화가 주는 의미를 모색하고 돌잔치와 성년례, 혼인잔치, 회갑잔치, 상례 등 '인생을 바꾸는 잔치의 마법'을 역설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동아대는 세계인문학포럼과 함께하는 '인문도시 부산' 프로젝트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인문학 대중화와 인문인재 육성 등을 위해 동아대는 지난 4월 부산시와 학술문화교류 업무협약식을 갖고 오는 10월 '인문 토크쇼-글로벌 듣고 음악으로 읽다'와 '피란수도 부산과 먼구름 한형석의 자유아동극장'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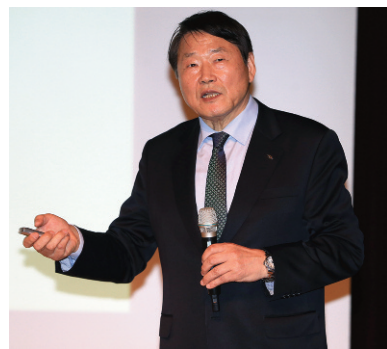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주요 인문학 행사 |

- 인문역량강화 사업단**
 - 국제학술대회, 인문학 콘서트, 기획 콜로키움
 - 인문기반융합 '6인6색 전문가 특강'
 -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 '인문학 플랫폼, 교류의 장을 열다'
 - 글로벌 헤리티지 청년기획자 양성과정
- 석당박물관**
 - 대표 소장품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석당 뮤지엄 워크'
 - 전시 관람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도전! 석당 골든벨'
 - 유물의 인문학 가치 이해를 위한 '특별전', '학술대회'

▼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



▼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전 동아대 교수)



▼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 정호승 시인



명사들의 강연, 몸과 영혼의 보양식

동아대는 승효상 건축학과 석좌교수의 토크콘서트를 비롯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호승 시인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건축과 체육, 문학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명사의 강의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승효상 석좌교수의 토크콘서트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네 번에 걸쳐 개최됐다. 지난 3월 20일 '거주'를 시작으로 4월 17일에는 '장소', 5월 15일과 6월 5일에는 각각 '풍경'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승학 및 부민캠퍼스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만났다. '거주'는 건축의 목적이고 '장소'는 그 바탕이다. '풍경'은 건축의 결과이며 건축의 존재 이유는 '기억'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승 교수는 철학과 인문학이 녹아있는 건축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승 교수는 서울시 총괄 건축가와 파주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으며 최근 출범한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공공 건축물과 공간 환경, 도시재생 등 우리나라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과 12일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특강이 개최됐다.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 회장은 학생들에게 '신뢰'와 '인성', '실천',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내 삶을 끌고나갈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동아대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조재기 이사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처하는 우리 체육인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조 이사장은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 스포츠는 '문화', 운동은 '과학과 예술'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만의 개념을 정리해두어야만 한 분야에서 정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1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는 '정호승 시인 초청 강연회-절망의 시대, 정호승과 다시 희망을 찾는다'도 열렸다. 동아대 학생과 시민 등 200여 명이 모인 특강에서 정 시인은 '고래를 위하여'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굴비에게' 등 주로 젊은 세대를 생각하며 쓴 시와 평소 메모해 놨던 잠언 등을 녹여내 20대에게 희망과 사랑, 격려를 건넸다. 그는 "이 시대 청년세대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던져져 힘들 테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당부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 올해로 3년째 부민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야행'

단과대 콜로키움, '융복합형 인재 양성' 초석

동아대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인문학 관련 학술대회 외에도 각 단과대나 학과가 주최하는 행사도 풍성하게 열고 있다. 특히 '2018 기획 콜로키움'은 각 단과대의 전문성에 인문학적 역량을 더한 '융복합형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이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과 진행하고 있는 공동 학술대회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교수는 물론 학생들 간에도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쌓고 있어, 한·일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문과학대학을 비롯해 국제전문대학원, 석당학술원,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등 다양한 단과대 및 학과가 '2018 기획 콜로키움'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기회의 확대는 물론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아대 의료인문학교실과 부산대 의료인문학연구회 공동 주관의 '의료인문학 특강'도 지난 5월 21일 열려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민의 '인문학 놀이터' 석당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석당박물관 탐구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은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 등을 결합해 유물과 현장,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대학박물관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석당박물관은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박물관 소장품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전! 석당골든벨 △석당뮤지엄WEEK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석당박물관 탐구생활'을 추진하고 있다. '도전! 석당골든벨'은 박물관 전시 관람과 미션형 체험을 통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이며 '석당뮤지엄WEEK'는 박물관 대표 소장품을 주제로 한 참여형 교육주간 프로그램이다. 특히 '근대 실용공예와 산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근대유물과 관련된 인문학 가치 이해를 목적으로 오는 11월 2일 개최 예정이다.



▲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01 최대 300억 원 지원 ‘자율개선대학’ 및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선정 겹경사

동아대학교가 교육부 실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 3년간 최대 270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또 연간 22억 원 규모의 ‘2018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에도 선정돼 겹경사를 맞았다.

교육부는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대학을 가려내려는 취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 동아대를 비롯 전국 207개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86개를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지정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이번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동아대는 정원감축 권고나 재정지원 제한 없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정부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아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한 ‘2018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사업’에도 선정됐다. 전국 73개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부울경 권역의 동아대를 포함해 모두 11개 대학만 선정됐다.

동아대는 서부산의 교육·지식·문화 허브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지역 거점 사립대학’이라는 점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Quantum Leap 2024+’가 담고 있는 혁신 방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학년도부터 추진해온 ‘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으로 키우기 위한 융복합 교육 패러다임인 ‘BEYOND 교육혁신’ 프로젝트도 크게 주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02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동아대학교가 교육부의 ‘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동아대는 지난 2010년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9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아대가 2018년 한 해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비는 1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영남권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동아대는 고교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의 학업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근간이 되는 입학사정관들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 대학에 우수사례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중·고교 및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안내를 확대하는 등 고교교육 내실화에 다방면으로 동아대가 기여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 동아대 수시전형 면접 대기실 모습



03 순환형 취업지원 시스템 근간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 3억 원 돌파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매월 1~2만 원씩 정기 기부하고 있는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이 2018년 1학기 초 3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 교육에 참여하고 취업교육기금을 내는 사례는 동아대가 전국에서 유일하며, 취업지원실과 취업지도교수도 동참하는 등 학교 구성원들도 각종 상금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 참여자는 1,000여 명에 이른다.

동아대는 이 기금을 활용, 취업지원실 직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취업교육과 취업캠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년별·분야별 취업동아리 운영과 스터디룸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동아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다른 대학에서도 앞 다투어 벤치마킹하는 등 ‘취업지원 시스템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졸업생들은 취업교육기금 기부뿐만 아니라 직접 모교를 찾아 입사 희망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전략 조언 등 후배들에게 멘토링도 해주는 등 순환형 취업지원 시스템의 근간이 되고 있다.

▼ 선배들이 참가해 멘토링을 해주는 동아대 취업캠프



04 비(非) 육사 출신(동아대 학군단) 최초 특전사령관 화제 남영신 장군,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취임

동아대학교 학군단(ROTC) 23기(교육학과 81학번) 출신으로 지난해 비(非) 육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특전사령관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남영신 중장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정부가 기무사 개혁 방안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출범시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남 사령관은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보안·방첩부대의 초대 사령관이 됐다. 남 사령관은 지난 1985년 소위로 임관, 32년간 제7공수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제3사단장,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주요 참모와 지휘관을 역임했다.

이처럼 동문 최초의 3성 장군이자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배출한 동아대 학군단은 지난 5월 2일, 57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역사관을 개관했다.

학군단 역사관은 지난 1961년 창설된 최초 16개 학군단 중 하나인 동아대 학군단의 역사와 성과를 보존하고 선배들의 정신을 후배들이 계승·발전해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110개 학군단 중 이 같은 규모로 역사관을 갖춰 정식 개관식까지 한 것은 동아대가 처음이다.

학군단 동문과 현역 간부, 1·2년차 후보생,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된 동아대 학군단 역사관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을 비롯 학군단 연혁과 주요 성과, 역대 동문회장 및 학군단장, 4,182명의 역대 임관자 명단, 연대별 주요 물품, 역대 학군단복 및 군복 등이 보존돼 있다.



남영신 장군
교육학과 81학번, 학군단 23기

- 2018. 9.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2018. 8. 국군기무사령관
- 2017. 9. 육군 특수전사령관
- 2015. 4. 육군 제3보병사단장
- 2014. 5. 육군 제2작전사 동원전력처장
- 2013. 4.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장

▼ 동아대 학군단 역사관 내부



05 동아의 원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구문갑 청호냉동(주) 회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

동아대학교는 지난 7월 2일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과 구문갑 청호냉동(주) 회장(신평장림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각각 명예정치학박사,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동아대 법학과 61학번인 홍 전 수석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아 서울을 오가다가 이른바 '서울의 봄'과 함께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민주화와 문민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하는 등 50여 년의 세월을 돌아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고문위원이기도 한 홍 전 수석은 "2% 모자라는 계계 이렇게 명예로운 학위를 주신 것은 아직 젊으니까 사회와 모교를 위해 일을 더 하라는 운명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며 "앞으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 회장은 대학 졸업 후 1967년 당시 국내 최대 연근해 원양냉동 회사였던 신흥냉동수산(주)에 공채 1기로 입사, 초기 한국수산업 발전에 실무적인 노력을 했다. 1988년에는 청호냉동(주)을 설립, 냉동·냉장공장의 원가 절감을 위해 업무자동화 도입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무의 전산화를 처음으로 시행, 국제업무와 세관업무 효율화를 이뤄 내무부장관 표창과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50여 년간 수산 및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 구문갑 청호냉동(주) 회장

▼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과 구문갑 청호냉동(주)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06 해외취업 및 1인 창업·사업자 수 연속 1위 기록

취업준비생이 사상 최대 규모(통계청 발표 2018년 3월 기준 69만 6,000명)를 기록한 가운데 동아대학교는 해외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된 2016년 대학정보공시 취업통계조사 결과 동아대는 '해외취업자 수'가 59명으로, 졸업생이 3,000명 이상인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동아대는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2015년도 대학정보공시 취업통계조사 결과에서도 해외취업자 수가 모두 33명으로 1위였으며 2014년에도 32명의 해외취업자를 배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동아대는 '1인 창업·사업자 수' 36명으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23개 동남권 대학 중 1명 이상 1인 창업사업자를 배출한 대학은 동아대를 비롯해 모두 22개로 이들 대학의 1인 창업사업자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동아대는 지난 2016년 말 발표된 '2015년도 대학정보공시 취업통계조사 결과'에서도 1인 창업·사업자수가 38명으로 1위였으며 2014년에는 24명의 1인 창업·사업자를 배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산업디자인학과 '장애인 보조기구 디자인 해커톤'



07 산업공학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4년 연속 'S등급'

공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인 '산업공학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4년 연속 S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약을 체결, 기업이 원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대학의 학사와 전문학사, 석사과정을 통틀어 중소기업 계약학과로 설치된 69개 과정 중 4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대학은 동아대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에서 동아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의 차별성이 돋보였고,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팀 프로젝트가 운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산업공학과를 개설, 현재 6기까지 졸업생 128명을 배출했다. 지난해부터 석사과정인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도 만들어져 모두 2개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석사과정 또한 이번 평가에서 설치 1년 만에 A등급(우수)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 팀 프로젝트 발표수업을 듣고 있는 산업공학과 학생들



08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당선자 58명 배출

지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동아대 동문 58명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동아대 동문은 국회의원 1명과 광역단체장(시도지사) 1명, 기초자치단체장(시장 및 구청장) 10명, 광역의원(광역시·도의원) 9명, 기초의원(시·구·군의원) 3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5명 등 모두 58명으로 파악됐다. 부산 해운대구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 운동을 지원하며 정치에 입문, 3전 4기를 이뤄냈다.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광역시장에 취임하게 된 오거돈 당선자는 동아대 행정학 박사 출신이고, 재선에 성공한 허성곤 김해시장 당선인은 동아대 도시조경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목공학과 출신 강석주 동문은 경남 통영시장에 당선됐다. 이외에도 최형욱(동구), 공한수(서구), 윤중서(중구), 홍순현(해운대구), 노기태(강서구), 김철훈(영도구) 등 부산 지역 구청장 당선자 6명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당선자 등이 동아대 학부와 대학원 등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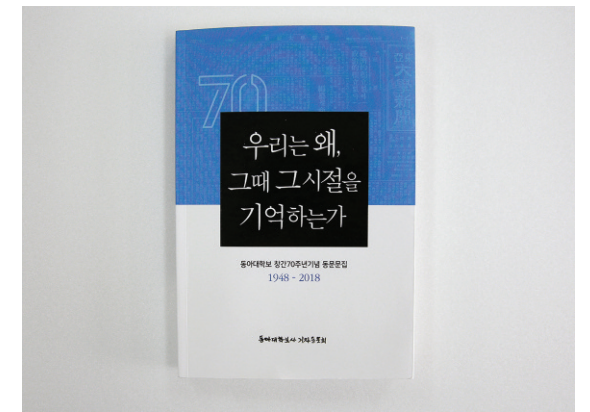
▼ 총동문회에서 주최한 당선자 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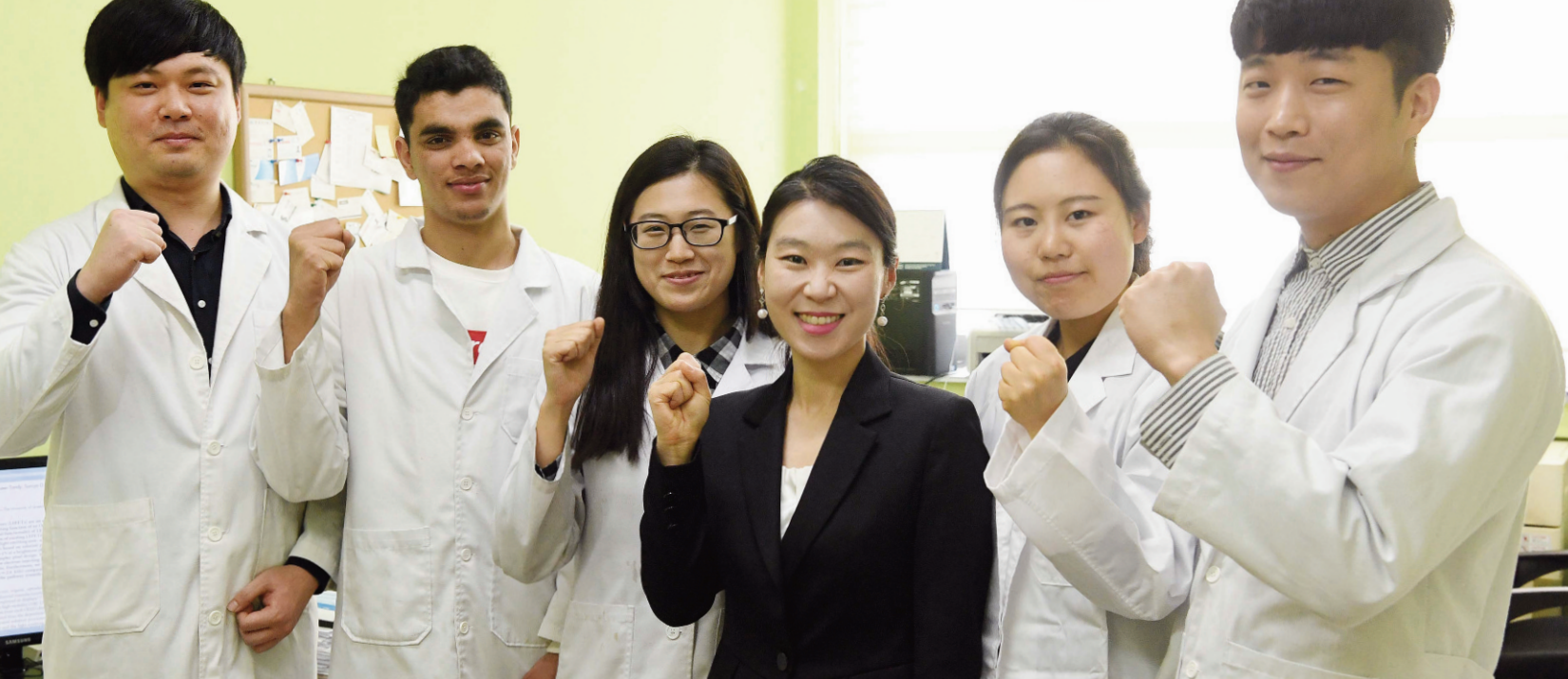


09 동아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 개최

'동아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6월 23일 송학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개최됐다. 한석정 총장과 김동규 교학부총장, 동아대학보사 기자동문회, 현직 학생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동아대학보사 기자동문회(회장 권수득)는 '동아 100년 동행' 대학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으며, 학생기자들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장학증서도 전달했다. 권 동문회장은 "동아대학보의 역사는 그대로 동아대의 역사"라며 "앞으로 동아대학보가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교의 연로가 더욱 넓혀지고 견실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우미디어센터는 동아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호(지령 제1144호)를 발행했으며 특히 학보사 기자동문회는 창간 50주년 기념 문집 『난, 널 버릴 수 없다』를 출판한 지 20년 만에 70주년 기념 문집 『우리는 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가』를 발간했다. 동아대학보는 지난 1948년 6월 15일 '동아대학신문'을 제호로 창간한 전국 대학 최초의 대판 4면 신문으로, 6·25전쟁으로 한 때 정간되기도 했으나 지령 제4호부터 지금의 제호인 '동아대학보'로 변경됐다.

▼ 동아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문집





(사진제공 : 국제신문사)



(사진제공 : 부산광역시)

10 신소재물리학과 서정화 교수 ‘부산과학기술상 여성과학자상’ 수상

신소재물리학과 서정화 교수가 제17회 부산과학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산과학기술상은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회가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의욕을 북돋아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시행해오고 있다. 여성과학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서 교수는 저비용, 쉬운 공정으로 차세대 응용 소자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한 의의가 담긴 논문이 지난해 신소재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차세대 유기 트랜지스터 성능과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11년에도 ‘차세대 유기 발광 트랜지스터 소자’ 개발에 성공하며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1권 19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11 토목공학과 박남식·행정학과 한세억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박남식 토목공학과 교수와 한세억 행정학과 교수가 ‘2018 세계 물의 날’ 및 ‘제31회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박 교수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 프런티어 사업’에 참여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수 수자원의 최적 관리를 위한 고도 기술들을 개발한 것과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청정 지하 저수지 연구단’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31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정보화 역기능 예방정책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 교수는 ‘인터넷 중독 및 역기능 해소 관련 연구’ 등으로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정보화 역기능 대응 관련 민·관 협력과 대국민 인식 제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박남식 토목공학과 교수



▲ 한세억 행정학과 교수

12 의학과 한성호 교수 ‘항노화산업발전’ 부산광역시 표창

한성호 의학과 교수가 ‘항노화산업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28일 부산시 주최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대제전 개막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의학과 가정의학교실에서 노인학과 노화방지, 비만, 임상영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수는 지역기업체와 공동연구로 R&D를 활성화하고 항노화·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지역 최다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한 교수는 이번 수상에 대해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한 부산시에서 항노화 관련 연구와 개발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며 “앞으로 지역 연구진들과 힘을 합쳐 더욱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13 김경태·이정규·남현정 교수 등 연구 부문 수상 및 성과 잇따라

분자유전공학과 김경태 교수가 ‘농우기술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식물생명공학회가 뛰어난 연구실적을 보인 회원에게 주는 상으로, 김 교수는 식물연구 분야 TOP 4 저널인 ‘New Phytologist (IF 7.330)’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외 저널에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식물 분자유전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학공학과 이정규 교수팀은 차세대 2차전지용 음극소재에 적용 가능한 ‘다공성 실리콘입자 제조기술’을 개발, 충방전 반복 시 전극 부피팽창이 커져 전지 수명이 짧아지는 실리콘 소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연구는 화학 및 재료분야 권위 있는 학술지인 ‘ACS Nano’ 4월호에 게재됐다.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 소속 남현정 교수가 ‘두뇌한국21 플러스(BK21 플러스) 사업’ 우수 연구인력으로 지난 3월 선정됐다. 남 교수는 모두 7차례에 걸쳐 해외학술대회에 참여, 논문을 발표한 것과 최근 SSCI급 저널에 논문 4편이 등재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 김경태 분자유전공학과 교수



▲ 이정규 화학공학과 교수



▲ 남현정 BK21플러스사업단 교수



(사진제공: KBO 한국야구위원회)



14 야구부 이정용 선수 LG트윈스 1차 지명

야구부 이정용(태권도학과 4) 선수가 지난 6월 25일 열린 '2019년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식'에서 LG트윈스의 지명을 받아 화제다. 이 선수는 이날 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선정한 선수 10명 가운데 유일한 대학생 선수였다. 최고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공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등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데다 투구폼과 제구가 안정돼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야구를 시작한 그는 성남고 2학년 때 뒤늦게 투수로 전향했지만 3학년 때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프로팀 지명을 받지 못하고 2015년 동아대에 진학했다. 대학 입학 뒤 절치부심, 한층 성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여러 구단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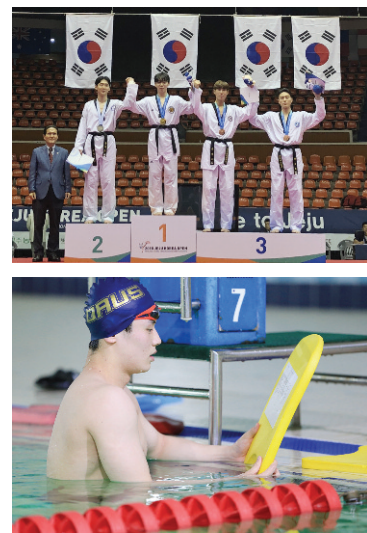
15 스포츠단 선수들 전국 대회 대학부 제패, 잇따른 승전보

스포츠단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며 대학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굳건히 했다.

수영부는 지난 5월 열린 '제90회 동아수영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남자대학부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에서 이승열 선수(평영)와 임정현 선수(자유형)가 개인전 2관왕을 차지했으며 계영 800m와 혼계영 400m 1위 등 단체전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레슬링부는 지난 6월 말 '제4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남자대학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메달 6개를 따고 돌아왔다. 이영진 선수가 자유형 74kg급 1위, 이기환 선수가 79kg급 2위에 올랐다.

지난 7월 22일까지 열린 '2018 제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도 태권도부가 금메달 2개(조호현·변길영)를 땀고 '2018년 제3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에서는 김민수 선수가 레이저레이디얼 종목 1위에 올랐다.



16 동남아시아·중국·미국 등 해외 대학과 활발한 교류협정 체결

총 32개국 254개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동아대학교는 이번 학기에도 동남아시아와 중국, 미국 등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Muhammadiyah) 재단 소속 2개 대학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같은 재단 소속 4개 대학과 국제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4년제 대학 142개교와 78개 전문대학, 92개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함마디야 재단 소속 대학 중 동아대와 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족자카르타무함마디아와 말랑무함마디아, 수라카르따무함마디아, 아흐마드달란, 자카르타무함마디아, 함카무함마디아 대학교다.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도 갱신했다. 호치민기술사범대는 호치민 투덕캠퍼스 내에서 '동아대 한국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청도농업대학과 복수학위 협정도 체결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소재한 중국 청도의 청도농업대학은 1951년 설립된 학생 수 3만여 명 규모의 사립대학으로 인문과 사회, 경제, 이공, 예술계열 22개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단과대 차원에서 교류해왔던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메트로폴리탄주립대(MSUD)와도 더 긴밀히 교류하기 위해 학생교류와 교원교류, 공동연구 등을 포괄하는 두 대학 간 일반협정(MOU)을 체결했다.

▼ 덴버 메트로폴리탄주립대와 협정 확대



▼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과 협정 갱신



▼ 중국 청도농업대학과 협정 체결





나눔의 씨앗은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

(주)삼흥기업 회장 조흥래(경영학과 '76 졸)

지난해부터 동아대 경영대가 사고중심 교육과정인 '다우이즘'을 신입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976년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조흥래 (주)삼흥기업 회장은 경영대의 향후 비전과 청사진을 듣고 교육과정 혁신과 인재발굴 위한 발전기금을 여러 차례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뜻은 높게 자세는 낮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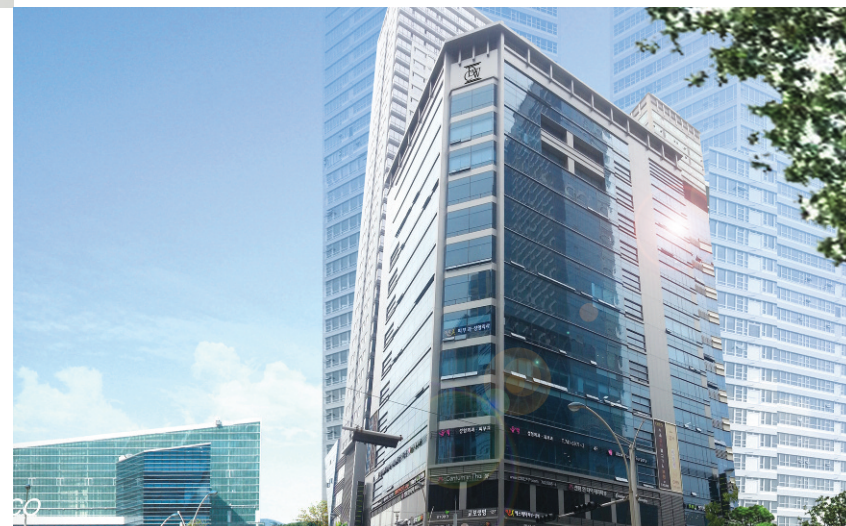
겸손한 말투와 온화한 미소에서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 자신의 삶을 관리하며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부만큼 '웰 에이징'의 본뜻을 의미 있게 실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 회장은 1993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열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6,500만 원을 우리 대학에 희사했다. 늘 '사람이 힘이다.'고 믿는 그는 미래의 인재를 위해 기부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꿈을 지원하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 작은 손길이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부라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경영학과 졸업과 동시에 국제상사(주)에 입사, 신발제조와 인연을 맺었다는 조 회장은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PRO-SPECS)' 브랜드 창설을 주도하며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신발산업 생산과 수출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러나 공룡같은 거대 기업을 변화시키는데 한계를 느껴 7년간의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신발공장을 차리게 된다. 한정된 자금, 대기업에서 익힌 인력관리방법은 영세기업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결국 2년 만에 공장은 문을 닫게 된다.

그 후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1년 사이 월급이 4번이나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된다. 직접 하청공장을 해보지 않았다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이다. 새로 차린 공장은 제품고급화를 꾀해 시장의 인정을 받아 내로라하는 고급 스포츠 브랜드의 협력업체로 발전하면서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내수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당시 매출 120억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20여 년을 함께 한 신발과 이별을 하게 된 것. 하지만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동시에 새로운 삶과 만나는 기회가 됐다. 그 후 공장용 부지로 확보했던 대지를 처분하고 현재의 센텀시티 상가 조성부지로 대토(代土)하여 상가 개발 부동산업체로 업종을 전환,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 삼흥기업의 대표적인 건물인 센텀드림월드



동아, 마음속 고향

조 회장에게 동아대는 마음속 고향과도 같은 존재다. 젊은 시절, 장래에 대한 고민과 열정으로 방황할 때 모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듯 인생진로를 잡아주고 단단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곳이자 오늘의 그를 있게 해준 토대였다. 지난해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그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모교의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을 맡으며 동아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픈 말이 있다고 한다. "사회에 진출할 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의 선택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기회의 순간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에게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음을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순간이 시작의 순간입니다."

선(善)한 시간이 축적된 그의 조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찬 영원이 되길 바라본다.





동아를 알리는 얼굴들, 동아를 이야기하다

대학을 알리는 학생들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홍보물 사진 속 모델에 그치지 않고 학교를 대표해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대학을 알리는 중책을 맡고 있다. 수동형에서 능동형 캐릭터로 바뀐 것이다. 대학을 홍보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마케팅 최전방 요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대표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동아의 얼굴들을 만나봤다.

동아대가 궁금하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 예그리나 | 22기 이양곤(전기공학과 14학번)

전통의 홍보대사 예그리나

동아대 방문객들 중 연간 2,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캠퍼스 투어를 통해 동아대의 이모저모를 만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일반인,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 등 캠퍼스 투어의 손님은 실로 다양한데, 그들에게 동아대를 알차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바로 학생 홍보대사 '예그리나'다. 동아대학교 홍보대사 예그리나는 1995년 1기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활동해 왔다. 올해 3월, 23명의 예그리나 23기를 선발했고 현재 총 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그리나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단연 캠퍼스 투어다. 예그리나는 캠퍼스 투어 루트를 짜고 소개할 내용을 연구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 인턴기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대본부터 어느 타이밍에 농담을 해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지 등까지 꼼꼼히 교육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홍보대사의 자질은 무엇일까? 22기 예그리나로 활동 중인 이양곤 학생은 '자신감'과 '책임감' 두 가지를 꼽는다. "입시설명회 발표 전, 오늘만큼은 나는 이 학생들에게 방탄소년단이고 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되뇌다. 또한 "책임감 역시 중요한데 '왜 이 일을 내가 해야하지?'가 아니라 '나라서 가능한 일이고 내가 이 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책임감을 가질 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를 응원하는 법을 배우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양곤 학생은 "나를 응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부터 전국대학박람회, 학교홍보 영상과 포스터 촬영 등 다양한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도 몰랐던 일에 대한 즐거움과 적응성을 하나하나씩 발견해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를 알아가면서 애교심도 점점 커졌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경험이 무척 유익하다."면서 "학교를 대표해 학교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은 쉽게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양곤 학생에게 동아대는 어떤 의미일까. "동아는 나에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모든 음식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이자 요리의 필수요소지요. 동아대학교 역시 그렇습니다."라며 "72년의 역사와 그에 걸맞은 20만 동문의 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 최고의 재료가 될 것이며 동아대학교 홍보대사라는 단어는 '이양곤'이라는 사람을 맛있어 보이게 해줄 요소"라고 덧붙인다.



애정과 관심으로 동아를 봅니다

| 다메이트(DA:MATE) | 1기 박규한(체육학과 12학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첨병

동아대학교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의 시작은 지난 2017년 7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동아’라는 슬로건을 보고 찾아온 학생들 가운데 선발된 박규한 학생 등 6명이 홍보 서포터즈의 시작이었다. ‘동아대 친구’, ‘우리는 모두 다 친구’ 등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은 ‘다메이트’는, 현재 3기까지 선발돼 동아대 공식 SNS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입학 후 꾸준한 학내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박규한 학생에게 서포터즈 모집은 색다른 도전으로 다가왔다. “1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어딜 가나 1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항상 안정된 생활을 추구했던 제게도 큰 도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대학교 입시요강을 신청해 받아볼 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그는 다양한 교내활동을 통해 얻은 고마움을 홍보 서포터즈가 돼 되갚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가 요구하는 자질은 무엇일까. 흔히 열정, 창의성, 추진력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고 답한다. “학교 소식을 궁금해 하고, 학교의 장점을 직접 찾아서 알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공들여 만든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때가 제일 뿌듯해요.”



소통의 의미를 깨닫다

박규한 학생은 지난 1년간의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홍보 서포터즈의 가장 큰 매력은 학교 소식을 학생이 직접 친절하고 쉽게 가공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소통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에게 동아대는 어떤 의미일까. 동아는 ‘사랑’이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학생 입장에서 느낀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는 200개가 넘는 교내·외 장학 제도다. “많은 학우들이 신청 자격이 됴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홈페이지 ‘장학사항’란에 매일 출석체크 해보세요.” 두 번째 자랑은 취업지원사업이다. ‘리더스클럽’은 수도권 대학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명하다. “학우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박규한 학생은 학우들을 위해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 및 특강을 알려주는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많은 학우들이 우리를 찾아줄 때 홍보 서포터즈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와 동아대학교를 잇는 징검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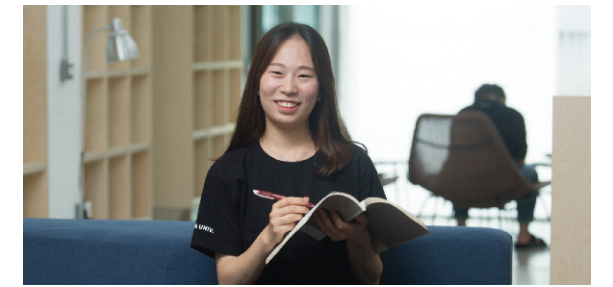
| 데일리(DAILY) | 1기 박혜진(국제관광학과 14학번)

나는 작은 외교관

데일리(DAILY)는 ‘Dong-A I Love You’의 약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동아대학교에서 함께 교류하며 동아대학교를 빛낼 주역으로 성장함을 의미한다. 재학생과 외국인유학생의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탄생한 데일리(DAILY)는 올해부터 기존 글로벌 멘토, 국제교류도우미, ISSC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학생서비스를 지원한다.

공항픽업부터 대학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캠퍼스 생활을 안내해 주고 외국인유학생 문화체험 행사 등을 기획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지원과 국제교류 관련 홍보 업무도 담당하는 전천후 학내 외교관이다. 1기 데일리로 활약 중인 박혜진 학생은 여행정보와 맛집을 알리는 블로거로도 활동 중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을 때 보람을 느끼곤 했다.”며 “평소 외국어와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에 관심이 많았는데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만 데일리를 지원할 수 있을까? 박혜진 학생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도와줘야겠다는 배려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데일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외국어 실력보다는 책임감과 배려심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해를 얻는 방식

데일리 활동으로 ‘이해’를 얻었다는 박혜진 학생은 데일리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다른 의견과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또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 내용을 전달해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동아는 나에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데일리의 슬로건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데일리의 슬로건이 Dong-A I Love You인데요. 이는 ‘동아대학교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들은 동아대학교를 사랑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저에게 동아대학교는 사랑을 받은 곳이자 제가 사랑하는 모교인 것 같아요.” 동아대에 입학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경험들과 동아대라는 곳기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었다는 그. 많은 학우들과 동아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 성장하고 또 다시 후배들과 학교를 위해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제가 동아대학교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 '2018 서울 국제 폴댄스 챔피언십' 더블 부문 1위 공연 및 시상식 장면

내가 만드는 두 개의 무대

입학사정관 **김신광**(생활체육학과 08학번)

'2018 서울 국제 폴댄스 챔피언십(SIPC)'에서 더블(Double) 부문 1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은 동아인이 있다. 국내에서 남녀 더블 부문 최초 출전으로 외국 유명 선수들을 꺾고 1위를 차지해 더욱 뜻깊은 성과다. 동아대 입학사정관이자 경영대학원 MBA과정을 밟으며 폴댄스 선수로도 맹활약 중인 김신광 동문을 이룬 여름 교정에서 만났다.

- 동아대학교 입학사정관실 근무
- '2016 전국 익스트림 폴스포츠타워' 아마추어 레벨2 2위
- '2017 엔젤컵 폴댄스 챔피언십' 아마추어 레벨3 1위
- '2017 코리아 폴 스포츠 챔피언십' 남자 3위
- '2018 서울 국제 폴댄스 챔피언십' 더블 1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만난 우연한 행운

김신광 동문에게 폴댄스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 우연히 발견한 행운)'다. 그가 폴댄스를 처음 접한 건 대학생 때였다. 공연 음향 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마침 폴댄스 공연무대였다. 한창 무거운 장비와 짐을 나르고 있는데 폴댄스 강사가 그에게 '힘이 좋아 보인다, 혹시 이 동작 한 번 해보겠냐.'며 폴댄스 동작을 보여줬고, 그는 그것을 한 번에 해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폴댄스를 배우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몇 년 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로 고민을 할 때, '남들이 잘 안하는 색다른 종목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문득 폴댄스를 떠올렸다. 낯설기 때문에,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좋아서 시작한 폴댄스는 처음부터 손조롭지 않았다. 다른 운동들이 반복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습하는 방식이라면 폴댄스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끝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났다. 아프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을 해냈을 때의 희열감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일과 취미 사이의 완벽한 균형

동아대 재학 당시 단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활발하게 대학 생활을 했던 그는 모교에서 입학사정관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의 고등학교를 돌며 동아대를 홍보하고 있다는 그는 세상 모든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체력'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면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히 직장생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평일 퇴근 후나 주말, 공휴일을 이용해 연습하는데, 타고난 기량 덕분인지 그의 폴댄스 실력은 나날이 일취월장했다. '2016 전국 익스트림 폴스포츠타워' 아마추어 레벨2 부문에서 2위를 한 데 이어 '2017 엔젤컵 폴댄스 챔피언십'에선 아마추어 레벨3 1위를 하며, 그 다음 대회부터 프로로 출전했던 것. '2017 코리아 폴 스포츠 챔피언십' 남자 3위를 한 후 '2018 서울 국제 폴댄스 챔피언십'엔 파트너와 함께 더블 부문에 출전, 1위를 거머쥐었다.

동아대, 인생의 구심점이 되다

동아대학교에서 학부생활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직원으로도 근무하는 그에게 동아는 또 하나의 자부심이다. "입시설명회를 나가면 학교 자랑을 많이 해요. 72년의 역사, 뛰어난 교수진, 다양한 장학금, 좋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랑은 20만 동문 파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시절 다양한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입학사정관이 되기 전 다른 일을 할 때도 어딜 가나 동아대 동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각계각층의 선배들이 있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만 동문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어디서나 든든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동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힘이죠." 언젠가는 그도 후배들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싶다고 덧붙인다. 모교에서 근무하는 기분은 어떨까. "일을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입시전문가로서 동아대 입학관리처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고 답한다. 또 "일과 취미생활 모든 부분에서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며 살고 싶습니다. 폴댄스 실력을 더 쌓아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힌다.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가 내디딜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한다.

▼ 입시설명회에서 전형을 안내하고 있는 김신광 입학사정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손길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동아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백리의 가없는 모교사랑
조무제 석좌교수, 2,000만 원 기부

대법관을 지내고 모교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는 조무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동아 100년 동행'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남모르게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청백리의 대명사' 조 석좌교수는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과 장학금 등 모두 1억 7,800여 만 원을 우리 대학에 기부했다.

그는 지난 1993년 100만 원을 시작으로 모교에 수시로 조용한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석좌교수로 임용된 뒤 급여에서 50만 원씩을 매달 발전기금으로 내놓다 지난해부터 100만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학기 중에는 '법조윤리' 과목 등을 강의하고, 방학 때도 연구실을 지키고 있는 그는 "발전기금 기부 소식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지만, 더 많은 동문들에게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고 싶은 뜻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이번 기부 취지를 밝혔다.



모교 발전에 올린 '벽돌 한 장'
제정부 석좌교수, 3,000만 원 기부

제정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동아대 법대 출신인 제 석좌교수는 지난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부 입법 총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법제국장과 행정법제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31대 법제처장을 지내며 '법제의 달인'으로 불렸다.

그는 "학생 및 교·직원 역량강화와 동문관 건립 등을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에 벽돌 한 장 올리게 된 것 같아 기쁘다. 동아대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전기금 기부 취지를 밝혔다.



베짱이로 베짱이를 갠다
청호농동(주) 구문갑 회장, 2억 5,000만 원 쾌척

동아대학교 출신인 구문갑 청호농동주식회사 회장이 모교 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쾌척했다. 지방산업단지 1호 공단이자 올해 정부 혁신산단으로 선정된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12년간 부이사장을 역임한 구 회장은 지난 3월 1일자로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 제12대 이사장에 취임, 공단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50여 년간 원양수산업과 냉동수산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동아대 상학과(현 경영학과)를 특대 장학생으로 졸업(1965년)한 그는 "학창시절 동아대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석당 정재환 선생과의 인연으로 모교 발전기금을 내기로 결심했다."며 "이제야 석당 선생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마음의 짐을 더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변호사
1억 원 기부**

동아대 출신 김백영 법무법인 삼덕 대표변호사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탰던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모두 1억 8,000여 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액은 특별히 “동아 100년 동행 학교사랑 캠페인 성공을 위해서 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님의 150억 원 약정이 도화선이 돼 동문사회가 많은 힘을 받고 있다.”며 “교직원 및 재학생 후배들의 역량 강화와 모교 재도약을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이 꼭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미래더원 이병욱 대표
1억 원 기부**

이병욱 (주)미래더원 대표가 동아대학교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을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 현장에서 동아대 동문 가운데 가장 먼저 약정서에 사인했다.

학교사랑 캠페인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발족식 현장에서 선뜻 기부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으니,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아 속을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눈치 보지 않고 빨리 시작해 다른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장섰다.”고 밝혔다.



**(재)세자녀출산지원재단 김영식 이사장
3,000만 원 기부**

김영식 (재)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이 동아대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출신이자 명예 경영학박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이 현재까지 모교에 쾌척한 금액은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서의 확고한 역할과 교직원 및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이 많은 동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취지에서 기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AMP 동문회 제45대 이재운 회장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동문회는 '2018년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지난 5월 30일 서면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주)철인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재운 제45대 회장은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이름으로 동아대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신임회장은 “임기 중 한강이남 최고의 탄탄한 동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동문 여러분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회장단이 될 것을 약속드리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성욱 경영학과 교수 연구실
1,000만 원 기부**

윤성욱 경영학과 교수(교무처장)의 연구실 모임이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내놓았다.

윤 교수는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 참석 후 큰 감동을 받아 제자들 모임에 소식을 알렸는데, 이를 본 제자들이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이렇게 전해왔다.”며 “제자들이 마음을 써준 것에 대해 지도교수로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의 제자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울 김미애 변호사
장학금 2,000만 원 전달**

'동아 100년 동행 김미애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5월 10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아 100년 동행 김미애 장학금'은 동아대에 지금까지 약 1억 원을 쾌척한 김미애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가 자신처럼 상황이 힘들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는 후배들을 위해 조성한 장학기금으로, 이광빈(고고미술사학과 3) 학생을 포함한 10명에게 2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이 지급됐다.

김 변호사는 동아대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위한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자문위원으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리켄케이코리아(주) 이철훈 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호 기부



디에이치테크(주) 황소용 대표이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6호 기부



영일상회 김득용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8호 기부



포스텍전자 구자용 회장
성훈건설 김철훈 대표
이스턴마린 김영득 대표이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9~11호 기부



경영대학, DAUist 릴레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
'DAUism Hall of Fame' 조성

경영대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DAUist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경영대학이 'DAUist GIFTs(다우리스트 기프트)'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조성, 'DAUism Hall of Fame' 제막식 행사를 지난 7월 18일 오후 부민캠퍼스 경영대학 로비에서 개최했다.

'DAUism Hall of Fame'에는 제1호 기부자인 조흥래 삼흥기업(주) 대표와 2호 기부자 윤정기 주원테크(주) 회장, 3호 이성우 (주)대일조선·씨텍 회장, 4호 윤재효 (주)세계수출포장 회장, 5호 이철훈 리켄케이코리아(주) 회장, 6호 황소용 디에이치테크(주) 대표, 8호 김득용 영일상회 대표, 9호 구자용 포스텍전자 주식회사 회장, 10호 김철훈 성훈건설(주) 대표, 11호 김영득 이스턴마린(주) 대표 등이 현재까지 이름을 올렸다.

제막식에서 한석정 총장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1명의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며 창출한 성과의 일부를 후학 양성을 위해 흔쾌히 나누는 발전기금 기부 주자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자들은 조흥래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D CHAMBER'라는 이름의 모임을 결성, 정기적으로 만나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경영대학은 '동문 찾기'와 '소액 모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 있는 동문은 경영대학 행정지원실(☎051-200-7402~4)로 연락하면 된다.



경영대학원 석사총동문회,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총동문회는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지난 3월 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전달했다. 경영대학원 석사총동문회는 해마다 회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은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귀영 (주)아이에스오탱크 대표이사(36기)와 박일근 (주)광림마린테크 대표이사(49기), 이창덕 (주)용비중합건설 대표이사(49기), 최성욱 (주)한국경영건설링 대표이사(51기)가 각각 5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모았다.



(주)내자인, 장학금 1,000만 원 전달

'2018학년도 (주)내자인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3월 16일 승학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주)내자인(대표이사 오상돈)은 지난 2015년 동아대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해마다 장학금을 기부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은제(중국어학과 3) 학생 등 재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아대학보 기자동문회, 발전기금 500만 원 및 장학증서 전달

동아대학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을 맞아 동아대학보사 기자동문회는 대학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아울러 학생기자들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장학증서도 전달했다. 권수득 동문회장은 "동아대학보의 역사는 그대로 동아대의 역사"라며 "긴 세월 동안 대학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했고, 대학 이름 그대로 '대동야'로 뻗어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한다."고 기념식에서 소감을 밝혔다.



최주현 졸업생, 수영부 발전기금 300만 원 기부

수영부 선수로 활약한 최주현(체육학과) 졸업생이 수영부 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최 선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같이 훈련했던 수영부 선수들에게 졸업생으로서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 후원금을 내게 됐다."며 "수영부의 변함없는 발전과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제90회 동아수영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자유형 2관왕(200m, 400m)을 차지하는 등 현재 고양시청 소속 선수로 활약 중이다.

동아 100년 동행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로 설정, 교직원·학생·동문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과 참여로 펼쳐지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캠페인 비전

전통 동아의 명성 재확보와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의 도약

동아인재 양성

동아 지식허브 조성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

캠페인 개요

구분	항목
동아인재 양성기금	교육과정 개편 / E-러닝시스템 구축
	우수교원 확보 / 교·직원 역량개발
	국제화 사업 / 해외교육 확대
	동아인재양성 장학기금
동아 지식허브 조성기금	문화사업 / 지역민 초청행사
	산학협력 / 미래 전망분야 육성사업
교육/환경 인프라 확충기금	미래교육관 건립
	중앙광장 조성

캠페인 모금계획 (~2020년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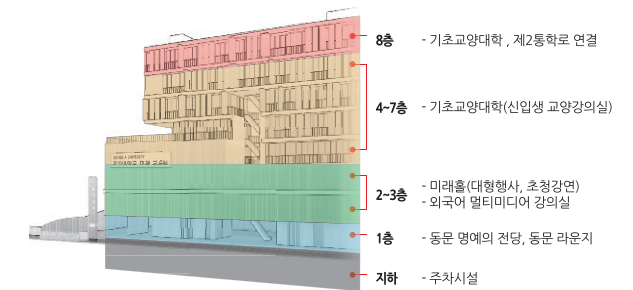
목표 모금액	300억 원 (동문, 교·직원, 주요 협력기관 및 개인후원자 대상 모금)
--------	--

※ 캠페인 모금액 외 교비 및 국책사업 예산 추가투입(약 300억 원 규모)

주요사업

- 건축개요**
- 총사업비 : 약 150억 원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8층
 - 건축면적 : 1,000㎡(약 300평)
 - 연 면 적 : 8,000㎡(약 2,400평)
 - 사업기간 : 약 30개월(2020년 준공 목표)

- 주요시설**
- 동문 명예의 전당(로비)
 - 기초교양대학 강의실(신입생 교양강의)
 - 미래홀(대형 행사 및 지역민 초청강의)
 - 외국어 멀티미디어 강의실, 스튜디오
 - 글로벌 카페라운지



※ 미래교육관 건립 투시도

캠페인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 입금** :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 온라인약정** :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ttp://fund.donga.ac.kr



휴대폰 카메라로 읽어주시면 간편하게 약정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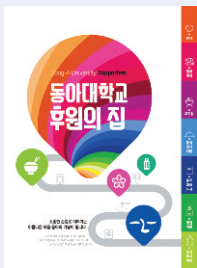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 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시 혜택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연말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발송 | 본교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홍보 | 발전기금 홈페이지 '후원의 집' 에 등재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홍보 | 전체 교·직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신규 후원의 집 소개

제177호 하단돼지구육밥

'하단돼지구육밥'은 동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가장 자주 찾는 우리 대학 인근 최고의 맛집입니다. 사장님의 넓은 인심과 맛에 대한 정성으로 다른 국밥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국밥 한 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다른 맛과 정을 느낄 수 있는 '하단돼지구육밥', 여러분들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141
051-207-9223 09:30 ~ 21:30

제178호 더진국 국밥(하단점)

'더진국 국밥'은 국밥의 세계화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국밥 대표브랜드입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국밥 본연의 맛은 물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얼큰 국밥' 메뉴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더진국 국밥'의 맛,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 529-13 삼진1차아파트 1층
051-203-6669 24시간 운영

제179호 백년지기

500평 규모의 한우고기 전문점. 고품스러운 외관과 분위기에 놀라며 보리굴비 정식의 맛에 또 한 번 놀란다는 이 곳! 과정동 대표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반찬이 특히 맛있는 곳. 중요한 손님이나 약속이 생겼을 때,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부산 사하구 마하로 2
051-206-0100 13:30 - 22:30

제180호 (주)M컴퓨터아카데미

'살을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디자이너의 비전과 꿈을 실현시켜주는 이 곳. 실무진의 감각을 배우는 이상적인 교육의 터전으로 디자인 및 자격증 과정, 취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의 수강생 성향 분석과 목표설정 지도하에 분야별 맞춤형 기업 선택을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를 교육에 반영하는 전문 아카데미입니다.

부산진구 중앙대로 703-1 YBM 6층
051-792-8200 10:00 - 22:00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nwaxe@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전화문의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기부안내

동아의 72년, 20만 동문의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운동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소액(1만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 당 1만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해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 할 뜻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장학기금 및 기타 목적기금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목적용 장학기금, 학과 발전기금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 시 기부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방문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로 내방하셔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MS납부	CMS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방법

전화·방문·온라인 약정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약정은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